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영화계 행사 재개 '눈치 게임'



2월부터 개봉 예정 많은 작품들 코로나19로 연기
먼저 개봉 할수록 부담 ↑...침입자, 가장 먼저 가닥

담은 커진다. 선례를 따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영화가 됐든 코로나19로 위축된 분위기를 깨고 극장가 행사 정상화를 이룰 작품이 곧 나와야 할 상황에 한쪽에서는 이를 두고 눈치 게임도 펼쳐진다.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개봉을 계획했다 코로나19로 이를 미룬 대표적인 영화는 '결백' (감독 박상현)과 '침입자' (감독 손원평) '결' (감독 이충현) 등이다. 세 영화는 모두 제작보고회까지 마친 상태로 개봉을 위한 홍보 활동들도 상당히 진행이 됐다.
이들 영화는 5월 중 개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여름 성수기 영화 대전이 시작되는 6월까지 미뤄진다면 애초 이 기간을 놓고 준비 중이었던 넷플릭스 영화들과의 흥행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5월에 개봉하지 않는다면 개봉 스케줄이 여름 이후로 더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

그중에서도 5월 개봉으로 가장 먼저 가닥을 잡고 있는 작품은 '침입자'다. '침입자' 측 관련 관계자는 "원래 3월 개봉으로 준비했던 작품이라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해 (5월 이후로) 더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봉을 하게 된다면 언론배급사사회나 인터뷰 등의 행사를 빠트릴 수 없다. '침입자' 측은 관련 행사 행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현재 극장에서 한줄 띄우기 관람 등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따를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시국이지만 조심스럽게 오프라인으로 인터뷰와 간담회 등을 진행한 작품들이 있었다.
영화 '서치 아웃'의 경우 주연 배우 허가윤의 라운드 인터뷰를 투명한 칸막이를 쳐서 진행했고, 24일 오전 진행된 에니메이션 '캐츠포피아' 시사회 후에는 데빙으로 출연한 개그맨 유민상, 오나미,

박지현 등이 참석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반면 23일 넷플릭스로 공개된 '사냥의 시간'의 경우는 배우 및 감독의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침입자'가 5월에 개봉을 한다면 그와 관련된 인터뷰와 간담회 등의 행사를 놓고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백'과 '결'의 관계자들은 각각 뉴스에 "아직까지 특별한 내용이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된 게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5월 개봉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전언.
한편 본격적으로 6월이 시작되면 국내 4대 배급사라고 꼽히는 CJ ENM, 롯데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NEW 등의 여름 신작들도 극장에 걸릴 예정이다. 특히 CJ ENM '도둑'은 6월 개봉할 작품으로 가장 먼저 손꼽히고 있는데, CJ 측은 이에 대해 지난 23일 "6월 개봉 목표이나 제작사와 계속 이야기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밖에 쇼박스의 '국제수사' 역시 6월 개봉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롯데엔터테인먼트의 '모가디슈' NEW '반도' 등은 여름 개봉을 노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감소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소 완화됐다.
2월부터 4월까지 개봉을 예정했던 많은 작품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개봉을 연기했다. 시간이 흘러 코로나19 확산이 누그러들면서 개봉이 밀렸던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돌아올 준비 중이다.
문제는 어느 작품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첫 테이프를 끊느냐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언론배급사사회와 인터뷰 등의 행사를 두고 홍보 담당자들의 고민이 크다. 개봉을 먼저 할수록 부

'부부의 세계' 한소희, 흔들리기 시작한 '여다경' 열연

승자 당당함 · 분노 유발 뻔뻔함 · 불안 · 공허 등 탄탄한 연기력



'부부의 세계'에서 완벽해 보였던 '여다경'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소희는 최근 방송 중인 JTBC 금토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여다경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다. '부부의 세계'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부부의 연이 배신으로 끊어지면서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야기. 숨막히는 전개와 출연진들의 명품 연기로 매회 시청률을 경신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5일 방송에서는 애써 이태오(박해준 분)에 대한 믿음을 잡아보지만 계속해서 포착되는 정황들과, 주변인 들의 경고에 점점 더 흔들리는 여다경의 모습이 그려졌다. 여다경은 마사지샵에서 지선우(김희애 분)와 민현서(심은우 분)가 대화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아직도 지선우를 돕고 있을 것이란 생각에 민현서를 다그쳤

지만 오히려 '어쩔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라며 마음 속 깊은 불안을 들려 당황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 자리, 자신의 식사를 챙기며 딸을 돌보는 이태오의 자상함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거야?"라는 여병규(이경영 분)의 물음에도 "난 태오씨 믿고, 아무 문제 없어"라고 이태오를 감싸며, "행복하지 않으면 돌아와라"는 걱정에도 "아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라며 성숙하고 단단한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여다경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다. 지선우처럼 늦은 밤 와인으로 불안을 씻고 머릿속에서 이태오를 향한 불신이 따라 다닌다 고백했다. 이태오는 여다경을 끌어 안으며 안심시켰지만 여다경은 서글픈 눈빛으로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한소희는 잔잔해 보이지만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여다경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얽혀버린 인물들의 관계에 몰입을 더해 시청자들을 끌어 들었다. 항상 날카롭게 날이 서있던 눈빛은 이제 공허함까지 느껴지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지친 여다경의 마음을 전했다.
승자의 당당함, 분노를 일으키는 뻔뻔함부터, 불안, 공허 등 깊은 내면의 감정들이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한소희, 예고를 통해 무엇인가를 목격한 후 충격에 휩싸인 여다경의 모습이 그려지며 금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부부의 세계'는 금, 토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더 킹' 이민호·김고은, 차원의 문 넘었다

'이곤 세계' 대한제국 도착...휘몰아칠 운명 · 증폭될 로맨스 예고

이민호와 김고은이 '차원의 문'을 넘어 '이곤의 세계'인 대한제국에 도착, 휘몰아칠 운명과 증폭될 로맨스를 예고했다.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더 킹-영원의 군주' (극본 김은숙/연출 백상훈, 정지현) 4회는 낄스코리아 기준, 수도권 1부 8.8%, 2부 10.1%, 2049 시청률 6.9%를 기록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1.6%로 상승하면서 4회 연속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이곤(이민호 분)과 정태을(김고은 분)이 함께 평행세계인 '대한제국'으로 오게 되면서, 평행세계를 접한 정태을이 충격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곤이 자신의 세계인 대한제국으로 떠나자, 정태을은 이곤의 반지리를 느꼈던 상황. 반면 대한제국으로 돌아온 이곤은 만화사적의 나머지 반 동강을 가지고 있는 이림(이정진 분)이 '차원의 문'을 뚫아들며 아직도 살아있을 거라고 의심하면서, 이림이 선황제(권윤빈)를 찌른 사인검을 보여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곤은 황실 여르신이자 25년 전 이림의 사체 검안서를 작성했던 의대 교수 이종인(전무송 분)에게 "제가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주세요. 이젠 제가 오랫동안 풀려온 문제입니다. 증명하지 못해 두고 갑니다"라며 이림의 사체 검안서를 남겨, 이림의 죽음에 대해 조사할 뜻을 밝혔다.
이종인을 만나러 온 대학교에서 도서관을 찾은 이곤은 대한민국 정태을과 함께 했던 자리에 앉아 정태을을 그리워했고, 정태을 역시 이곤과 함께 했던 대한민국 도서관에서 앉아 '평행우주'와 관련된 책을 읽으며 이곤을 떠올렸다. 그러던 중 정태을은 신분증을 분실했고, 과학수사팀에 있던 동료에게서 이곤의 지폐가 진짜라는 말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 이어 이곤이 자신의 세계로 가던 날, 대숲으로 향하는 것을 CCTV로 확인한 정태을은 홀로 대숲으로 향해 이곤과의 일을 회상하며 아득해

진 표정을 지었다. 그 시각, 대한제국 공간 은행나무 정원에서 이곤은 25년 동안 간직했던 정태을의 신분증을 보며 진짜 정태을을 만나 함께 했던 대숲 길을 떠올렸고, 쓸쓸한 표정으로 정태을의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후 정태을은 이곤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 속 모습 그대로 묶은 머리, 흰색 티셔츠, 남색 재킷을 입고 사진을 찍은 후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했고, 이곤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의 날짜인 2019년 11월 11일이 아닌 10월 11일인 신분증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그때, 건네받은 새 신분증의 발급일이 이곤이 말했던 2019년 11월 11일임을 알게 된 정태을은 그대로 굳어버렸고, 때마침 정태을의 자리로 전화를 건 이곤은 "자네 여전히 내 전화를 끊는군. 자네 오늘도 늦어? 내가 자네 보고 가려고 기다릴까 봐"라며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음을 알렸다.
그동안 이곤의 말을 되새겼던 정태을은 새 신분증 속 인상착의에 대해 이곤에게 물었고, 이곤이 정확히 알고 있다 또다시 놀라고 말했다. 이에 이곤은 "직접 보면 믿을 건가? 그럼 같이 가도 좋고, 같이 가자. 나의 세계로"라며 같이 대한제국으로 넘어갈 것을 제안했다. 맥시무스를 탄 채 대숲으로 향한 이곤과 정태을은 한자게 내달리며 '차원의 문'을 넘었고, 정태을이 짙은 감았던 눈을 뜬 순간, 이곤에게 폐하라고 부르는 대한제국에 도착했다. 황실 근위대, 그리고 조은섭과 똑같이 생긴 조영의 모습에 평행세계가 진짜임을 알게 된 정태을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뒤이어 "나는 대한제국의 황제이고, 부르지 말라고 지은 내 이름은 이곤이다"라는 이곤의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대한제국으로 향한 두 사람에게 광풍처럼 휘몰아칠 로맨스에 대한 금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더 킹-영원의 군주'는 매주 금, 토 밤 10시 방송된다.

'악인전' 첫회 방송사고...“후반작업 다 마치지 못해”

'악인전' 측이 방송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
KBS 2TV 새 예능프로그램 '악인전' 제작진은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25일에 첫 방송된 본 프로그램은 본래 '악인전 1부' 이후 '악인전 2부'가 방송이 될 예정이었으나, 미처 후반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하여 2부가 방송되지 못했다"며 "관심을 가지고 첫 방송을 시청해 주셨던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날 방송되지 못한 2부의 내용은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0시55분 방송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전했다.
'악인전'은 '음악인의 이야기'란 뜻으로,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한 많은 음악 닷둥이들이 레전드 음악인을



만나 새 프로젝트를 실현해가는 과정을 담은 음악 예능 버라이어티다.
지난 25일 처음 방송된 '악인전' 1회에서는 프로듀서 이상민과 음악 닷둥이 그리고 '레전드 음악인' 송창식, 송가인의 첫 만남이 그려졌다.
그러나 이날 1부 방송 말미에 '곧이어 2부가 방영됩니다'라는 자막이 나왔지만 2부가 아닌 '세상의 모든 닷둥이'가 방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7억의 사랑' 임영웅·영탁 "장민호, 힘든 시절 힘 준 사람"

임영웅과 영탁이 장민호와 얽힌 미담을 경쟁적으로 공개한다.
27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JTBC '77억의 사랑'에서는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의 주인공 임영웅과 영탁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와 관련 26일 JTBC 측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녹화에서는 현실과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이에 누구보다 공감할 임영웅과 영탁은 힘들었던 시절을 회상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당시 힘이 되어준 선배가 장민호라고 밝혀 금금증을 자아냈다.
임영웅은 "장민호가 한 행사장에서 조용히 불러 따뜻한 조언과 함께 맛있는 밥을 사먹으며 용돈을 줬다"고 감동적인 일화를 밝혔다. 그러자 영탁은 이에 질세라 "나도 받았었다"며, 장민호와의 우정을 자랑했고, 후배들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